

#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의 양육경험

## Nurturing Experience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dmitted to a Group-Home

황연화\*, 임종호\*\*

푸른솔 그룹홈\*,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eon-Hwa Hwang(hpj938993@hanmail.net)\*, Jong-Ho Im(ljhcu@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 8명이며, 연구방법으로는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총 34개의 개념과 28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범주들을 종합하여 '양육한계 봉착에 처한 후 그룹홈 입소로 관계 회복'을 핵심범주로 선택하였다.

실천 전략은 어머니의 양육단계에 따른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하고, 장애아동 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학령기 비장애아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차별화된 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돌봄 크레딧을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빈곤 문제의 최소화, 고운맘카드의 활용과 초기 의료사회복지적인 개입 필요, 시설순회학급 설치 확대, 성년후견제도 활용과 소득분위에 따른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차등적 지급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장애아동 그룹홈 | 어머니 양육 경험 | 근거이론 방법 | 질적연구방법 |

### Abstract

The research subject is 8 mothers who put their physical/mentally impaired children in a group home, as the research method,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surve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the in-depth interview on 8 mothers who put their disabled children to the group home. In the result of open coding, total 34 concepts, 28 subcategories and 13 categories were derived. The core category in the selective coding was 'establishing restorative relationship through entering a group home after encountering the limit of nurture.' Practical Strategie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it's necessary to provide psychology counselling consequent on a mother's nurturing phase, and this study proposes a program for a father having a child with disability; in addition, there is the necessity of having to arrange the differentiated facility for physically/mentally impaired people, which meets the needs of the relevant people. At a level of policy,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having to take into account the minimization of poverty problem facing a family having a disable child through the caring card, necessity of the use of good-natured card, and medical-social-welfare-based intervention, expansion of facility-touring class installation, and us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differential payment of disabled child nurturing allowance consequent on income quantile, etc.

■ keyword : |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Group Home | Nurturing Experience of Mothers | Grounded Theory |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

## 1. 연구의 필요성

그룹홈은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 보호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이다. 아동 그룹홈은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여 부모의 사망, 이혼, 가정폭력 및 학대, 가출 등으로 인해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들을 돌보는 제도이다. 아동 그룹홈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보호 사업은 소집단이기 때문에 아동과 성인 간의 거리가 대규모 시설보다 가깝고, 아동 개개인에 대한 개별 처우가 가능하며, 지역 사회 안에서 아동이 일반 가정의 아동과 유사한 풍부한 생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동료 집단의 상호 작용이 아동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고 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6].

본 연구가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연구 주제로 설정한 배경은, 중증 장애를 지닌 어린 자녀를 도저히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워 그룹홈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의 애절한 심정을 포함한 입소 전·후의 총체적인 양육경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다. 또한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장애인복지에서 부모의 양육경험 분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과거에는 자녀의 단순한 의식주 해결 및 장애 치료라는 단순한 접근방법이 주된 양육방법이었지만, 최근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선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조기교육의 강화 및 주변의 가능한 사회적 자원체계를 활용한 양육 스트레스의 경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이외의 보육시설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선행연구들[1-3]을 찾아볼 수 있고, 장애자녀 어머니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사회적인 맥락과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가족 내의 기능 약화에 따른 대안 모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중증장애아동의 오랜 간호 및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가중, 학령기 비장애인 자녀의 스트레스[4], 부부관계 갈등[5], 친인척들의 굵지 않은 시선에 대한 부담 등으로 가족 내의 기능 약화에 따른 대안 모색이 절실한 가운데 시설을 선택하게 된다.

10-11세 자폐아동을 2년 간 스웨덴의 그룹홈에 보낸 5가족 10명의 부모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 [6]에서, 아동들이 그룹홈에 입소하기 전에 부모들이 겪은 경험은 비탄과 슬픔에 대한 경험, 아동들의 행동을 규제하기 어려움에 따른 총체적인 소진, 사회적 고립, 아동들의 형제들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표현하였다. 2년이 지난 후 아동들의 향상으로 가족들은 안도하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셋째, 가정 양육의 한계에 봉착한 가족들이[23] 장애 아동의 입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소규모 시설이나 그룹홈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부모와 상시 분리하기보다는 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자녀를 방문할 수 있고, 장애아동 역시 주말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7].

이와 같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장애인 가족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고, 그 대안으로 소규모 그룹홈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거주형 그룹홈에 아동을 입소시키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sup>1)</sup>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는 극히 부족한 상태이며, 최근 10년 동안 장애인 그룹홈과 관련한 선행 연구 경향은 다음과 같다. 그룹홈 활성화 방안[8-14], 이용자 만족도[15], 종사자 처우[16], 사회통합 효과성[17], 지역주민의 태도[18], 현황분석[19] 등이다. 이러한 국내 선행 연구들은 우리나라 장애아동 그룹홈이 활성화 되지 않은 현실에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거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을 고양하는 데 초석을 다지고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무게 중심이 그룹홈의 효과성이기에 본 연구의 목적인 장애아동을

1) 2007년의 서울시 그룹홈 입주자 연령 현황을 보면, 18세 미만이 41명(11.5%)로 나타남(유정현, “장애인 그룹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9,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살펴볼 수 있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장애인 그룹홈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용자 만족도, 종사자 처우, 주거환경, 사회통합, 가족의 입파워먼트[24] 등의 주제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킨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선행연구들의 주제가 단편적인 주제들이기에 양육과 관련한 총체적인 경험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0]. 그러므로 이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현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입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관점에서 지각되는 총체적인 양육경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질적연구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다.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그룹홈 입소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실제적인 관점에서 수집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분석하여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도출된 연구문제 및 주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첫째,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의 고충
- 둘째, 그룹홈 입소후 어머니의 양육경험
- 셋째, 그룹홈 퇴소 후 양육 방안

## 3. 연구 방법

### 1)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장애아동 그룹홈에 자녀를 입소시킨 어머니들 가운데 연구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응하기로 수락한 8인이다. 아동이 그룹홈에 입소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아동의 연령은 입소 아동 가운데 가장 어린 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입소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최소한 2년 정도 경과

하여야 입소 이후의 양육경험을 알 수 있다는 스웨덴 사례를 제시한 Benderix et al.[6]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

| 참여자 | 연령 | 학력 | 결혼기간 | 거주지   | 직업 | 가족수 | 소득/만원 |
|-----|----|----|------|-------|----|-----|-------|
| A   | 41 | 고졸 | 14년  | 경기/안산 | 유  | 3명  | 250   |
| B   | 43 | 고졸 | 17년  | 경기/안산 | 유  | 4명  | 250   |
| C   | 40 | 고졸 | 15년  | 경기/안산 | 무  | 6명  | 250   |
| D   | 43 | 고졸 | 17년  | 경기/안산 | 무  | 4명  | 500   |
| E   | 46 | 대졸 | 17년  | 경기/수원 | 무  | 5명  | 500   |
| F   | 41 | 고졸 | 15년  | 경기/성남 | 무  | 5명  | 800   |
| G   | 50 | 대졸 | 24년  | 경기/시흥 | 유  | 4명  | 300   |
| H   | 41 | 고졸 | 15년  | 경기/시흥 | 무  | 4명  | 600   |

| 참여자 | 종교  | 장애자녀 성/연령 | 자녀의 장애유형 | 장애아동 입소기간 |
|-----|-----|-----------|----------|-----------|
| A   | 개신교 | 남/15      | 자폐성      | 6년 4개월    |
| B   | 불교  | 남/17      | 뇌병변      | 4년 2개월    |
| C   | 개신교 | 여/15      | 뇌병변      | 5년 6개월    |
| D   | 없음  | 남/17      | 자폐성      | 2년 3개월    |
| E   | 가톨릭 | 남/17      | 자폐성      | 8년 9개월    |
| F   | 없음  | 남/9       | 자폐성      | 2년 6개월    |
| G   | 개신교 | 남/17      | 자폐성      | 6년 4개월    |
| H   | 없음  | 여/15      | 자폐성      | 2년 2개월    |

### 2) 심층면담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 까지 진행했으며,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하여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파악하였다. 또한 장애아동 입소 시에 어머니들이 작성한 양육정보지와 참여관찰, 현장 노트는 보조 자료로 이용하였다. 심층면담은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면담횟수는 1회부터 최대 4회까지 진행하였다.

표 2. 심층 면담 문항

|    |                                |
|----|--------------------------------|
| 1  | 그룹홈에 입소시키게 된 동기                |
| 2  | 그룹홈에 입소하기까지 어려웠던 점             |
| 3  | 그룹홈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
| 4  | 그룹홈의 환경에 대해                    |
| 5  | 그룹홈의 교사에 대해                    |
| 6  | 자녀의 향상된 기능으로 인한 그룹홈에 대한 만족     |
| 7  | 그룹홈에서 다른 부모들과의 양육경험 나누기에 대한 느낌 |
| 8  | 그룹홈 입소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
| 9  | 그룹홈 입소 이후에 갖는 스트레스             |
| 10 | 장애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

### 3)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의 분석 절차는 경험적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는 김수지·신경립[20]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개방코딩의 과정으로, 면담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한 줄씩 읽어나가는 행간분석법에 의해 개념을 명명하고, 자료에 나타난 사건, 행위, 상호작용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을 대조하면서 개념적으로 비슷한 것끼리 모아 추상성이 높은 범주를 이루어 나가며, 개방코딩 작업에서 연구대상자들의 면담내용을 지속적으로 비교해가면서 개념의 다양한 속성과 차원적 수준을 발견해 나가고, 분석된 개념들은 하위범주로, 하위범주는 다시 상위범주로 추상화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축코딩의 과정으로,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좀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분석틀에 따라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 중재적 상황, 전략, 결과로 분류하여 이들의 속성과 차원의 영역을 연결하며, 연결코딩 작업을 통하여 미흡한 범주를 채워나갔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코딩의 과정으로 이야기 윤곽과 핵심범주를 파악하며, 핵심범주를 체계적으로 다른 범주에 적용해 보면서 그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관관계를 정형화하고, 이를 근거자료와 대조하면서 관계 유형을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자료분석 결과와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해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하는 유형분석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분석하고 상황적 관계를 파악하면서 실체이론을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였다.

### 4) 연구평가 기준

질적연구에서는 발견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도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설득하기 위한 신뢰성과 연구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전략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 (1) 사실적 가치 : 참여자 A의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장애자녀 때문인지, 남편의 무능력과 시댁 식구들의 간섭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아 참여자에게 본 연구 결과를 보

여줌으로써 참여자의 경험과 말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 (2) 적용 가능성 :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내용의 포화를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 참여자가 아닌 다른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 확인과정을 거침으로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3) 일관성 : 참여자 D의 경우 주말에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자녀가 그룹홈 와서 얘기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자주 발견되었다. 면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소 어머니와의 상담 일지, 가정통신문 회신 내역 등을 참고하였다.
- (4) 중립성 : 참여자 G의 남편은 아동의 입소 상담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바른 말하길 서슴지 않고 작은 금전 문제에도 예민해 있어서 이해타산을 너무 따지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연구 참여자 G의 면담 과정에서 남편과 관련된 내용들을 들었을 때, 가능하면 비심판적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남편의 친구인 다른 입소 아동 아버지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편견 개입이나 선이해가 작용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 5) 분석 방법

근거이론의 분석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범주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연구의 핵심주제인 중심현상을 가져온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 중재 조건, 그리고 상호작용전략과 결과의 순서로 진행된다. 패러다임 모형은 전체적으로는 인과 모형을 따르고 있지만 맥락과 중재조건, 그리고 상호작용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과정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4. 연구결과

### 1) 개방코딩

범주화 과정은 중증장애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삶의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우선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

한 개념들은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 결과 총 34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개념들을 통합한 28개의 하위범주가 나왔으며, 이러한 하위범주를 추상화시킨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자료의 범주화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3. 개방코딩

| 모형             | 범주(13)              | 하위범주(28)                  | 개념(34)                                       |
|----------------|---------------------|---------------------------|--|
| 인과적 상황         | 1. 충격               | 1) 부인                     | ▶ 충격적인 장애진단 결과                               |
|                | 2. 무너진 일상과 잃어버린 '나' | 1) 엽매임                    | ▶ 아이 곁을 떠날 수 없음<br>▶ 나만의 시간이 없음              |
|                | 3. 버거운 삶            | 1) 절망감                    | ▶ 죽고 싶은 마음<br>▶ 눈물로 세월을 보냄                   |
| 맥락적 조건         | 4. 경제적 어려움          | 1) 넉넉하지 못한 생활<br>2) 치료 부담 | ▶ 뼈뺀 생활<br>▶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비                    |
|                | 5. 가족 간 불화          | 1)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            | ▶ 무책임한 남편                                    |
|                |                     | 2) 시댁과의 갈등                | ▶ 시댁이 주는 상처                                  |
| 3) 비장애자녀들의 갈등  |                     | ▶ 비장애자녀들의 불안              |  |
| 중심 현상          | 6. 양육 한계 봉착         | 1) 방치 후회<br>2) 양육자의 질병 발생 | ▶ 최악의 양육 상태<br>▶ 우울증                         |
|                | 7. 사회적 지지           | 1) 가족들의 지지                | ▶ 가족들의 위로와 격려<br>▶ 친정 식구들의 도움                |
| 2) 친구들의 지지     |                     | ▶ 속마음을 알아줌                |  |
| 8. 비장애 자녀를 돌아봄 |                     | 1) 소홀함에 대한 후회             | ▶ 비장애자녀에 대한 미안함                              |
|                | 2) 비장애자녀에 대한 기대     | ▶ 비장애자녀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음    |  |
| 9. 현실 수용과 인식전환 | 1) 자녀의 장애 인정        | ▶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임       |  |
|                | 2) 양육 대안 탐색         | ▶ 장애아동 시설을 알아봄            |  |
|                | 3) 새로운 인식           | ▶ 내 삶을 가지고 있음             |  |
| 작용/ 상호작용 전략    | 10. 그룹홈 입소          | 1) 한계 상황                  | ▶ 가정 양육 한계                                   |
|                |                     | 2) 시설 찾기                  | ▶ 종종 아동시설 찾기                                 |
|                |                     | 3) 양육부담 감소                | ▶ 주중 24시간 케어<br>▶ 순회학급에서의 치료교육<br>▶ 참여자들의 모임 |
| 결과             | 11. 관계 회복           | 1) 아이의 긍정적 변화             | ▶ 숙면을 취함<br>▶ 물리치료 효과                        |
|                |                     | 2) 양육자의 긍정적 변화            | ▶ 자유로운 경제활동<br>▶ 양육자의 편안함                    |
|                |                     | 3) 가족 갈등 해소               | ▶ 비장애자녀와의 갈등 줄어듦                             |
|                |                     | 4) 달라진 주말 분위기             | ▶ 주말은 모든 가족과 함께                              |

|                     |             |                            |
|---------------------|-------------|----------------------------|
| 12. 달라진 삶 그리고 경계 짓기 | 1) 달라진 마음가짐 | ▶ 도전하는 마음                  |
|                     | 2) 장래 양육 방안 | ▶ 퇴소 후 청소년 그룹홈 희망          |
| 13. 양가감정            | 1) 이용료 부담   | ▶ 월 이용료 부담                 |
|                     | 2) 주말 귀가 부담 | ▶ 주말 보호 희망<br>▶ 비장애자녀들도 중요 |

각 범주에 따른 주요 심층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범주 1. 충격

참여자들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장애판정에 대해 충격 받았고, 치료를 하여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 중증 장애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아이가 생후 4개월 때 경기를 심하게 했는데 바로 병원으로 가지 못했어요. 늦게 발견되어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뇌손상이 심해 생명이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 이후로 경기는 멈추었지만 후유증으로 뇌세포가 회복되지 않아 뇌병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때 그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참여자 C)

△ 범주 2. 무너진 일상과 잃어버린 '나'

참여자들은 장애자녀를 돌보면서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아이를 돌보는데 엽매이고 자신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어머니들은 결국 자신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하위범주는 '엽매임'과 '잃어버린 나'이었다.

신체도 그렇고 뇌성마비다 보니 같이 움직여야 되지요. 조금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예요. 보다시피 할 줄 아는 것이 눈으로 보고 때가 되면 먹여 주는 밥이나 먹고 오줌똥 귀저기 알아줘야 되고 목욕, 이 닦기, 잔심부름을 해줘야 해서 아이 옆을 떠날 수가 없지요. (참여자 B)

하루하루가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종일 애 옆에서 시중을 하다 보면 정말이지 나 혼자만의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누가 대신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참여자 E)

△ 범주 3. 버거운 삶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다른 평범한 어머니들보다 충격과 지속적인 마음의 고통으로 수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아울러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앞이 캄캄하고 자신의 삶이 너무 버겁다고 느끼고 있었다. ‘버거운 삶’은 절망감의 하위범주로 추상화되었다.

정말 극단적일 때는요 청산가리나 있으면... 나랑 아이랑 죽고 싶고 조그만한 알약 눈곱만한 알약이라도 먹고 조용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참여자 D)

날이면 날마다 울었어요...밥 하면서 울고... 로션을 바르면서도 울고 밥을 먹어가면서도 울고.. 화장실에서도 울고.... 애랑 같이 있으면서도 울고... (참여자 B)

△ 범주 4. 경제적 어려움

남편의 실직과 부도로 빠듯한 생활을 호소하고 있으며, 비싼 조기치료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힘들게 살 것이 뻔한 앞날의 생활에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으로 추상화되어 포함되는 하위범주는 ‘넉넉하지 못한 생활’과 ‘치료 부담’이었다.

집이 지하라 남편이 없을 때 아이를 업고 내리기에 힘이 듭니다. 아이는 커 가는데 가정환경이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아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월세 15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참여자 B)

일용직으로 비올 때는 쉬고 눈 올 때도 쉬고 나머지 일할 때에만 일하다보니 월 수입이 100만원이 안돼요. 제가아이들 돌보는 일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어요. 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맡긴다 해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집에서 키웠어요. (참여자 C)

△ 범주 5. 가족 간 불화

평소 장애 아이에게만 신경 쓰다 보니 비장애인 형제 자매들의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장애자

녀를 돌보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가족 간의 불화로 분석되어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 ‘시댁과의 갈등’, ‘비장애 자녀들의 갈등’으로 범주화되었다.

남편은 아이한테 정말관심이 없어요. 그룹홈에 입소할 때에도 보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7개월 때 수술할 때도... 그룹홈 입소할 때도... 주말에 집에 와도 관심 없어요. 너무 무책임하니까 제가 남편한테 관심 없어 졌어요. (참여자 B)

시댁식구들 미울 정도로 원망스러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을 하게 한다던가 자식을 봐준다거나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있어요. (참여자 A)

우리 아이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오빠가 집에 안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토요일에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춘기가 왔다 봐요. (참여자 E)

△ 범주 6. 양육 한계 봉착

참여자들은 홀로 장애 아이를 돌보는 어려움에 더해 남편이 비협조, 시댁식구들과의 의절, 비장애자녀들의 불만 등의 가족 간의 불화가 극도에 다다른 시점에 도달하였다. 또한 아동의 수면장애와 과잉행동, 양육자 자신의 항암치료와 우울증 등이 겹쳐 양육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따라서 나타난 하위개념은 ‘방치 후회’, ‘양육자의 질병 발생’으로 추상화되었다.

우리아이는 누워있으니까 보호자 도움 없이는 안 되거든요.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기저귀가 흠뻑 젖어있고 엉덩이는 헐어있고 배가 고파서 바닥에 머리를 박아 멍이 들어있고... 방치한 것이 양심에 찢리고 슬프기도 해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참여자 B)

제가 우울증이 심해요. 우리 아이랑 가출한 적도 있어요. 집안에서는 야단난 거죠. 3일 만에 집에 들어 왔는데... 바닷가에서 우리 아이랑 실컷

보내고 온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 후부터 남편이 불안 하니까 아이와 분리시키려고 한 거죠. (참여자 F)

△ 범주 7. 사회적 지지

주로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지체계는 건강한 자녀나 친정 식구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가까운 친구들이었다. 따라서 나타난 하위개념은 ‘가족들의 지지’, ‘친구들의 지지’로 추상화되었다.

그래도 친정 엄마가 마음 적으로 제일 편했고 가끔 친정 엄마네 집에 아이를 맡기고 도움을 받았어요. 언니들도 잘해주지만 특히 친정 엄마가 잘해주세요 지금까지... (참여자 A)

제 남동생이 총각이라 차가 필요할 때면 급하게 병원 데려다 주는 일 남자가 꼭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급한 일... 밤에 일어나는 일 그럴 때에는 기동성이 없고... 친동생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참여자 G)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노래방을 혼자 가다가... 친구들과 만나서 서로 불려서 즐겁게 지내고 그중에 1명은 내 속마음 알아줘서 밤 1시든 2시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곤 하는 친한 친구예요. 지금도 언제든지 불려주면 나오는 친구예요. (참여자 D)

△ 범주 8. 비장애자녀를 돌아봄

장애 아이에게만 신경을 쓰느라 비장애자녀에게 소홀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고, 그룹에도 불구하고 또래보다 일찍 성숙하여 잘 키우는 비장애자녀에게 여러 가지 희망적인 기대를 하였다. 따라서 나타난 하위개념은 ‘소홀함에 대한 후회’, ‘비장애자녀에 대한 바람’으로 추상화되었다.

형이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둘째에게 신경을 전혀 못했어요. 혹시 둘째가 나중에 커서 엄마를 원망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장애를 가진 첫째 아이에게도 미안하지만 늘 둘째한테도 미안해요.... 형에게 양보를 하게하니까(참여자 D)

내가 장애아를 키워봐서 잘 알잖아요. 이런 애를 비장애 형제에게 어떻게 짐을 주겠어요. 버거운 짐이라 생각되지요. 남은 애들한테는 절대로 부담을 안줄 거예요. (참여자 E)

△ 범주 9. 현실 수용과 인식 전환

장애의 고통을 현실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삶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나타난 하위개념은 ‘자녀의 장애 인정함’, ‘양육 대안 탐색’,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추상화되었다.

우리 아이가 세 번째 수술을 할 때 부모의 도리로 수술을 하지만 어린 아이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결국은 고칠 수 없는데 그때 생각한 것이 우리가족 모두의 운명이구나... (참여자 B)

우리아이가 장애가 너무 심해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기 아동시설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참여자 F)

남편은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정말 너무 아파서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아이랑 살려면.... 그 때부터 정신 차리고 제 몸을 챙기고 있어요. 영양제도 하루에 한 개씩 꼭 챙겨먹고요. (참여자 H)

△ 범주 10. 그룹홈 입소

입소하기까지 자녀에게 맞는 시설을 찾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 끝에 그룹홈에 입소하게 되었다. 입소 후 주중 24시간 자녀를 보호하는 시스템과 치료교육을 병행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양육부담이 덜어졌다. 따라서 나타난 하위개념은 ‘한계 상황’, ‘시설 찾기’, ‘양육부담 감소’로 추상화되었다.

시설에 보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평생이 아이와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막상 보내려고 하니 못 보내겠는 거예요. 아이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났어요. 불쌍해서요. 우리아이는 엄마 밖에 모르거든요. 엄마 울면 같이 울고 눈물 닦아주고... (참여자 D)

사실 시설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여러 곳에 다녀봤지만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알아보았지만 시설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거나 성인시설이어서 결정하기 어려웠는데, 이웃에 사는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현재 그룹홈을 알려주었는데....(참여자 C)

선생님이 우리아이와 함께 24시간 생활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우리아이에게는 보호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참여자 H)

특수학급이 그룹홈내에 있어 수업도 하지만 교육청에서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지원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처(참여자 A)

그런데 우리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저보다 더 힘든 생활들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남편의 사업, 남편의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등 각 가정마다 힘겨운 생활을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들이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지지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도 힘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E)

#### △ 범주 11. 관계 회복

참여자들은 아이의 장애로부터 비롯되어 자신의 삶을 상실하고 가족과 사회와의 단절과 갈등을 경험하였지만, 차차 이러한 관계들을 회복하고 확장해나감으로써 보다 적응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특히 '아이의 긍정적 변화', '참여자 자신의 긍정적 변화', '가족 갈등 해소', '달라진 주말 분위기'를 통해 나타났다.

잠자는 습관이 바뀐 거예요! 차에서나 휠체어에서 자야지 3시간 정도 자는데 이제는 바닥에서 자요. 우리아이의 습관이 어디에 올라가서 놓고 자고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같이 누워서 자는 걸 여러 차례 반복 했었나 봐요. 아이가 잠을 푹 자니까 덜 산만하고.... 학교선생님이 착석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 났다고 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죠. (참여자 F)

물리치료를 4년 받았습니다. 입소시킬 때 만해도 목도 못가누고 매일 경기하다시피 했는데, 건강해져서 참 좋습니다. 지금 체중도 늘고 키도 많이 컸어요. (참여자 C)

그리고 내가 경제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없을 정도로 편안할 때가 많습니다. (참여자 F)

그룹홈에 보내기 전에는 하루 식사 두 끼와 기저귀 야침 같이주고 밤에 와야 같이주게 된 것이 아이한테 미안하고 마음으로 괴로울 정도였어요.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등산도 가고 친구도 만나서 밥도 먹고 해요. (참여자 B)

우리 아이가 다시 집에 올 나이가 되면 둘째가 사춘기 때예요. 둘째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거든요. 동생은 형이 그룹홈에 있으니까 정말 좋다고 해요. (참여자 D)

그런데 그룹홈에 보내기 전보다 모두들 가족들이 편안해 졌다거나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쇼핑도 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대화 시간이 많아져 그 동안의 서로가 건디기 힘들었던 것들을 이야기 하면서 서로의 힘겨웠던 점들도 알 수 있었어요. (참여자 G)

#### △ 범주 12. 달라진 삶 그리고 경계 짓기

여기에는 '달라진 마음가짐', '장래 양육 방안' 두 가지 하위범주가 포함된다. 장애아 어머니들은 이전과는 다른 도전하는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태도와 행동양식을 시도해 나감과 아울러 자신과 아이와의 분명한 경계를 지음으로써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보다 새롭고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그룹홈 퇴소 후 장래 양육방안으로는 청소년 그룹홈을 희망하였다.

저보다 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 돌봄 이야기 듣고 있으면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주고 어떤 일이든 닦치면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나도 묵은 감정 털고 새 일 찾고 싶은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참여자 D)

다른 하나는 아이가 컸을 때 퇴소 이후가 걱정되긴 합니다. 청소년 그룹홈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아동, 청소년, 성인이 있는 대형시설에 보



내기는 싫고요. 그 사이에 청소년 그룹홈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G)

△ 범주 13. 양가감정

참여자들은 장애아동이 그룹홈에 입소한 후 제반 기능의 향상되었고, 자신도 회복적 삶을 영위하였지만 사후 문제로 인한 걱정과 이용료 부담, 주말보호에 대한 부담 등으로 양가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나타난 하위 범주는 ‘이용료 부담’, ‘주말귀가 부담’이다.

아무래도 가장 큰 스트레스는 교육비죠? 많이 봐주셔서 적은 금액이지만 기저귀 등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참여자 B)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주말에 집에 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말에 집에 있는데 돌보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봐주시면 좋은데, 선생님들도 쉬어야 하니까, 그래도 가끔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C)

주말까지 계속 그룹홈에 있기를 바랬죠. 동생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거나 사춘기 때이고 지금은 주말에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아요. 창피하고 귀찮게 하니까요. (참여자 E)

3) 축 코딩

축 코딩은 하위범주들을 연관 지어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조합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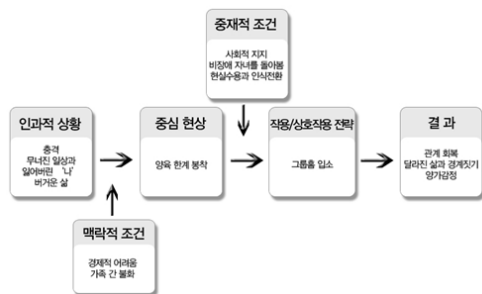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4) 가족관계 회복과정 분석

- 1) 장애로 인한 충격, 무너진 일상과 잃어버린 ‘나’로 인한 버거움 :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외로움, 두려움, 절망감, 의미 상실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자신의 삶이 너무 버겁다고 여겼다.
- 2)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 불화 등으로 양육 한계 봉착 : 참여자들은 홀로 장애 아이를 돌보는 어려움에 더해 남편의 비협조, 시댁식구들과의 의절, 비장애인 자녀들의 불만 등의 가족 간의 불화가 극도에 다다른 시점에 도달하였다.
- 3) 주위 지지와 비장애자녀에 대한 관심과[25] 현실 수용 후 그룹홈 입소 : 입소하기까지 자녀에게 맞는 시설을 찾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 끝에 그룹홈에 입소하게 되었다. 입소 후 주중 24시간 자녀를 보호하는 시스템과 치료교육을 병행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양육부담이 덜어졌다.
- 4) 양가감정 있지만 달라진 삶과 자녀와의 경계 짓기로 회복적 관계 :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지님과 아동을 그룹홈에 맡김으로써 나타난 여러가지 양육부담이 줄어든 것을 계기로 자녀의 달라진 모습과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들을 회복하고 확장해나감으로써 회복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5. 함의 및 제언

1) 이론적 함의

첫째,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의 양육 경험을 분석하는 일은 ‘가정에서의 장애아동 양육’이라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기술한 남연희[21]의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논의를 보다 확장함으로써 인간과 여성에 초점을 맞춘 어머니의 삶을 폭 넓게 분석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그 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그려졌던 중증 장애아동과 장애가족의 복합적인 갈등의 범위들 속에서, 어머니만의 수동적이고 무한한 양육부담을 강요하던 이계운[5]의 연구 결과를 넘어서서 ‘주체적인 행위자’로서의 삶을 설계하고 갈등을 완

화해 나가는 측면을 드러냈다. 셋째,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의 역할이 어머니와 가족의 책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제도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측면에 있음을 드러냈다. 넷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자조집단을 통한 역량강화, 어머니들의 회복력 등은 최근 장애인복지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론들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다섯째,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후의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연구한 최초의 질적연구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2) 실천적 함의

첫째, 어머니의 양육단계에 따른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자녀의 장애로 인한 심리정서적 충격이나 내면화된 무기력 등을 당사자 스스로 치유하고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양육부담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이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원조할 수 있고, 긍정적 자기개념을 쌓아 자기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 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아버지들의 가치관과 인식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시댁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완충적인 역할을 시도하면서 훨씬 갈등의 예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차별화된 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자녀가 장애아동 그룹홈에서 퇴소 연령에 이르렀을 때, 계속적으로 시설보호를 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것을 장애청소년 그룹홈이라고 하였다.

## 3) 정책적 제언

첫째, 장애아동 돌봄 크레딧<sup>2)</sup>을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빈곤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저소득층

2) 국민연금공단의 크레딧은 돌봄 노동, 군복무, 실업교육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혹은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해 야기될 수 있는 노후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다. 현재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 또는 친권자·후견인에게 장애아동을 돌보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운맘 카드의 활용과 초기 의료사회복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임신 기간 중에 필수적인 산전검사를 위해 모든 임신부에 대해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고운맘 카드<sup>3)</sup>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상적인 등하교가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을 위해 시설 순회학급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박민수, 장애아동 복지시설의 만족도에 관한 실증 연구 : 장애아동 부모와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2] 김현희, 시설입소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영향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3] 김진숙, 위탁가정 아동의 적응과정 연구 : 근거이론 접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4] 김나영, 윤호열,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발달장애학회, 제3권, pp.127-138, 1999.
- [5] 이계운, 장애아동을 둔 취업모의 시간관리 전략과 양육부담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6] Y. Benderix and B. Nordstrom, “Parents’ Experience of Having a Child with Autism and Learning Disabilities Living in a Group Home: A Case Stud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 Practice, Vol.10, No.6, pp.629-641, 2006.
- [7] 김현희, 시설입소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영향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8] 강동현,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인천지역 중심으로,

3) 고운맘 카드는 조산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2013년 4월부터는 한 의원을 이용해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분만 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이며 1일 한도액은 6만원이다.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9] 이영희, *장애인 그룹홈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0] 선현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1] 유현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2] 하춘자, *장애인 그룹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3] 우상열, *장애인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4] 조성금, *요보호아동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5] 선현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6] 박재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7] 황수정, *공동생활가정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8] 김길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9] 박상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현황분석 : 대전 지역 공동생활가정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0] 차혜경,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 : 끝없는 긴장의 재구성*,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1] 김수지, *신경림 역, 근거이론의 이해*, A. Strauss, & J. Corbin,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8.

[22] 남연희, *정신지체아동 어머니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3] 김미량, 이연주, 이정호,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여가제약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Vol.9, No.1, pp.366-375, 2009.

[24] 정소연, “가족임파워먼트 척도(Family Empowerment Scale)의 요인구조 검증 및 단축형 척도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7, pp.214-227, 2013.

[25] 유용식, 권순신,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4, pp.508-517, 2013.

[26] 김성태, *아동 그룹 홈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저 자 소 개

##### 황 연 화(Yeon-Hwa Hwang)

정회원



- 200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석사)
- 2013년 2월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4년 4월 ~ 현재 : 푸른솔 장애아동 그룹홈 원장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아동복지

##### 임 종 호(Jong-Ho Im)

정회원



- 1999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